

의회활동

원 구성

〈의 장〉 김양희

〈부의장〉 엄재창, 김인수

〈정당별 의석〉 자유한국당 17명, 더불어민주당 9명, 무소속 3명이 있다.

의정 활동 2017년 6회의 임시회와 2회의 정례회 등 총 8회 129일간에 걸쳐 도의회를 운영했다. 회기 중에는 도정보고 청취 3회, 대집행부질문 4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예산·건의안 등 227건의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연찬회 6회, 현지 점검 66회 등의 활발한 의정 활동을 전개했다.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 촉구 건의안,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건의안,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속한 배상 촉구 건의안, 보은·진천·증평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및 수재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대책 건의안, 북한 6차 핵실험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촉구 건의안, 도로보수원 손직 인정 촉구 건의안,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설립 촉구 건의안,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건의안 등 9건의 대정부 건의안 및 결의안을 채택해 정부정책에 반영하도록 요구했다.

충청북도 자연재난 피해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재난현장 활동 물적 손실 보상 조례안, 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조례안 등 4건의 재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재난 피해자들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2017년 11월 9~22일 도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출장소, 도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도가 4분의 1 이상 출자·출연한 법인, 민간위탁기관, 충청북도교육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87건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고, 242건에 대해서는 건의 및 촉구를 했다.

에 거점을 마련한 뒤 점차 남하해 옛 마한지역을 통일하고 이 고장을 중심으로 백제를 형성했다. 그 후 백제, 고구려, 신라가 공존하다 신라가 당(唐)과 힘을 합쳐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킨 뒤 이곳에 도독부를 설치하고 웅주라 칭했다. 후백제와 후고구려가 936년 고려에 통합된 뒤 하남도라 불리다 공민왕 5년에 충청도로 명칭이 바뀌었다. 조선 인조 때는 공청도, 정조 원년에는 홍충도로 불리다 순조 34년(1834년) 다시 충청도로 환원됐다. 고종 33년(1896년) 충청남도과 북도로 나뉘었다.

1932년 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옮겨졌다. 1935년 대전읍이 대전부로 승격됐고 정부의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1949년 8월 15일 대전시로 개칭돼 1시 14군이 됐다.

1963년 천안읍이 시로, 당진면과 대천면이 읍으로 승격됐다. 1973년 신탄진·유성·삽교·합덕·태안·성환 등 6개 면이 읍으로 승격됐다. 1983년 대덕군, 유성읍, 회덕읍 일원과 구즉면, 진잠면, 탄동면 일부가 대전시로, 보령군 오천면 삽시도리 일부가 서산군 안면읍으로, 서산군 고북면 대사리와 홍성군 결성면 외리가 홍성군 갈산면으로, 천원군 풍서면 구룡리가 천안시로 편입됐다. 1986년 공주, 대천, 온양읍이 시로 승격되고 보령군 미산면 성주출장소가 성주면으로, 안면읍 고남출장소가 고남면으로 각각 승격됐다.

1987년 1월 1일 대전시와 대덕군이 대전직할시로 분리됐고, 서산군 서산읍이 시로 승격됐다. 1989년 1월 1일 서산군 내의 태안읍, 안면읍, 고남면, 남면, 근흥면, 소원면, 원북면, 이원면이 75년 만에 복군된 태안군에 편입됐다. 1990년 2월 27일 3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 인근의 논산군 두마면 일원에 계룡출장소가 신설됐다. 같은 해 4월 1일 아산군 염치면이 염치읍으로 승격됐으며 12월 31일 천원군이 천안군으로 개칭됐다. 1991년 11월 30일 대산면이 대산읍으로 승격됐다.

1995년 1월 1일 공주시·군이 공주시로, 대천시와 보령군이 보령시로, 온양시와 아산군이 아산시로, 서산시·군이 서산시로 각각 통합 개칭됐다. 같은 해 3월 1일 충청북도 청원군 강의

충청남도 면적·가구·인구

(2017년 12월 31일 현재)

구분	면적(km ²)	가구(세대)	인구(명)
합 계	8,227.44	923,373	2,116,624
천안시	636.07	263,434	631,531
공주시	864.19	49,393	108,432
보령시	573.90	47,407	103,198
아산시	542.62	129,188	311,453
서산시	741.30	72,469	171,678
논산시	555.18	56,679	122,240
계룡시	60.72	15,647	43,967
당진시	704.43	74,460	167,293
금산군	577.22	25,440	53,894
부여군	624.53	32,999	69,086
서천군	365.71	26,544	55,175
청양군	479.12	16,147	32,837
홍성군	443.99	44,833	101,570
예산군	542.66	37,489	80,338
태안군	515.80	31,244	63,932



道花 : 국화 道鳥 : 원앙
 道木 : 능수버들 캐릭터 : 충청이와 충나미
 도청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도지사 권한대행 : 남궁 영(南宮 英)



개관

연혁 충청남도는 삼한시대 마한의 북방경계 지역이었다. 마한의 중심국으로 정치 주도권을 쥐었던 월지국이 지금의 천안에 자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기원전 18년 북부여 온조가 남으로 내려와 충청남도 동북부

면 심중리 일원이 연기군으로, 충청남도 연기군 동면 갈산리 일원이 충청북도로 편입됐다. 5월 10일 천안시·군이 천안시로 통합됐다. 1996년 3월 1일 논산군이 논산시로 승격됐다.

2002년 1월 1일 천안시 직산면과 목천면이 읍으로, 2003년 9월 19일 논산시 두마면 일원이 계룡시로 승격됐다. 2010년 1월 1일 당진군 송악면이 송악읍으로, 2012년 1월 1일 당진군이 당진시로 각각 승격됐다.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 연기군이 세종시로 편입됐다.

2013년 1월 1일 충남도청이 대전광역시에서 충청남도 홍성군 흥북면 충남대로 21번지로 이전했다.

행정구역 2017년 12월 말 기준 행정구역은 8시 7군 25읍 136면 46동이고, 2천93 법정동·리와 5천660 행정통·리, 2만 4천879의 반이 있다.

재 정

세입 예산 도와 시·군을 합친 2018년도 예산총액은 15조 433억원으로 일반회계 13조2천427억원, 특별회계 1조8천6억원이다.

일반회계 중 지방세 3조2천542억원, 세외수입 4천68억원, 지방교부세 3조2천499억원, 교부금 3천723억원, 보조금 5조5

천43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천552억원이고, 특별회계 중 세외수입 5천23억원, 지방교부세 161억원, 보조금 4천663억원, 지방채 30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천29억원이다.

세출 예산 세입 예산과 같은 15조433억원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일반 공공행정 1조1천417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2천433억원, 교육 4천699억원, 문화 및 관광 7천515억원, 환경보호 8천986억원, 사회복지 3조8천244억원, 보건 3천71억원, 농림해양수산 2조1천68억원, 산업중소기업 2천311억원, 수송 및 교통 5천84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8천900억원, 과학기술 198억원, 예비비 1천854억원, 기타 1조5천890억원이다.

특별회계는 일반 공공행정 181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828억원, 교육 197억원, 문화 및 관광 245억원, 환경보호 7천59억원, 사회복지 3천146억원, 보건 17억원, 농림해양수산 517억원, 산업중소기업 1천480억원, 수송 및 교통 39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2천644억원, 예비비 713억원, 기타 585억원이다.

중점 추진사업

일 잘하는 지방정부로 가는 '행정혁신', 지식대상 5년 연속 수상, 공약 이행도 7년 연속 최우수, 2017년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충남형 정보공개시스템 구축으로 정보공개 100%, 도정과제·직무편람 매뉴얼 관리로 업무 누수 0%를 실현하고 실질채무(외부차입금) 제로를 달성했다.

주민이 주인 되는 '자치혁신',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사회단체대표자회의를 출범시키는 등 지역 현안 해결에 민간 참여를 확대했다. '지방분권 촉진조례'를 제정하고 시범공동체 101개를 육성하는 등 충남형 동네자치 모델을 구축해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수상, 행복마을콘테스트 수상 등의 실적을 거뒀다.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도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해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했다.

농어촌에 희망을 주는 '3농혁신', 무농약 인증면적 6년 연속 전국 1위, 고품질 벼 재배 확대, 화학비료 사용 감소, 직불금제도 개선 등 관행 농업에서 친환경·고품질 농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오감' 브랜드를 통한 통합마케팅, 인터넷 쇼핑물 '농사랑'과 로컬푸드 직매장 및 직거래장터 운영,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확대 등 소비·유통 체계를 혁신했다. 충남형 희망마을 만들기, 3농혁신 대학과 현장포럼을 통해 농어업인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했다.

지역에서 기업까지 '행복한 성장', 디스플레이·자동차·전자 등 기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수소연료전지차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지역경제발전전략인 '경제비전2030'을 수립했다.

도청 이전을 계기로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내륙에서 해양으로' 전환하고 평택~부여고속도로(2018년 착공), 천안~당진고속도로(2022년 일부 준공), 서해선복선전철(2020년 준공), 장항선복선전철(2017년 정부의 예비타당성 통과) 등 환서해권 SOC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또한 서산항만 유치(2017년 사전타당성 조사 통과), 당진·대산·보령항 다기능복합항 육성, 당진 왜목마리나 외자 유치,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2018년)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항 목	예 산 액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 입	15,043,328	13,242,703	1,800,625
지방세수입	3,254,177	3,254,177	-
세외수입	919,182	406,839	512,343
지방교부세	3,265,999	3,249,876	16,123
조정교부금 등	372,248	372,248	-
보조금	5,970,639	5,504,372	466,267
지방채	3,000	-	3,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58,083	455,191	802,892
세 출	15,043,328	13,242,703	1,800,625
일반공공행정	1,159,824	1,141,722	18,102
공공질서 및 안전	326,079	243,289	82,790
교육	489,687	469,927	19,760
문화 및 관광	776,059	751,536	24,523
환경보호	1,604,496	898,626	705,870
사회복지	4,138,984	3,824,408	314,576
보건	308,751	307,062	1,689
농림해양수산	2,158,487	2,106,785	51,702
산업·중소기업	379,143	231,137	148,006
수송 및 교통	623,446	584,039	39,407
국토 및 지역개발	1,154,406	890,026	264,380
과학기술	19,801	19,801	-
예비비	256,709	185,412	71,297
기타	1,647,456	1,588,933	58,523

아이에서 어른까지 「행복할 권리」 셋째아이 이상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학교 무상급식을 확대했다. 복지보건통합서비스를 42개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행복경로당·홀몸노인공동생활제·우리마을 주치의제를 운영했다. 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과 보호자 없는 병실사업도 시행했다.

소방서 4개소와 119 안전센터 17개소를 신설했다. 노후 소방차량 316대를 교체 및 수리해 구급차 골든타임 도착률을 높였다. 의료용 헬기를 도입해 도내 1시간 응급이송체계도 구축했다. 또한 재난현장에서 즉시 작동할 수 있도록 44개 유형별 재난대응 매뉴얼을 전면 정비했다.

도랑에서 서해까지 「행복한 환경」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가량이 도내에 있는(61기 중 30기) 현실을 감안해 대기오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에너지전환비전 수립, 에너지전환 국제컨퍼런스 개최 등 탈석탄 친환경으로의 에너지 수급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분산된 물 관리 기능을 통합해 수질 모니터링, 도랑 살리기, 지하수충량관리제 추진 사업의 효율을 높였다. 전수조사(방조제 279곳, 폐염전 54곳, 방파제 47곳)와 생태복원 시범사업을 통해 난개발로 훼손된 연안하구 회복에 노력했다.

산업

농업 2016년 말 기준으로 농어업 인구는 13만6천825가구 31만6천84명, 경지면적은 논 15만1천ha, 밭 6만4천ha 등 총 21만5천ha, 가구당 평균 경지면적은 1.57ha이다.

생산 농산물은 2017년 말 기준 쌀 72만1천, 보리류 327, 두류 7천19, 서류 4만1684t 등 식량작물이 73만6천193t이고, 잡곡 1천425t, 채소류 68만1천908t, 과실류 9만4천54t이다. 2005년부터 추곡수매제에서 공공비축제로 전환 추진 중인 가운데 2017년에는 공공비축미로 산물벼 70만4천636포대/40kg, 포대벼 291만5천135포대/40kg, 피해벼 19만7천955포대/40kg 등 총 381만7천726포대/40kg(격리곡 포함)을 매입했다.

‘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 희망프로젝트’인 ‘3농혁신’ 정책을 추진해 농어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농정추진체계를 구축했다.

임업 2016년 말 기준 산림면적은 40만8천ha로 도 전체 면적 82만1천ha의 49.7%, 전국 산림면적 633만4천ha의 6.4%를 차지한다. 국유림 3만2천899ha(8.1%), 공유림 1만9천260ha(4.7%) 사유림 35만5천881ha(87.2%) 등이다. 산림의 울창한 정도를 나타내는 총 임목축적은 5천391만8천m³로 전국 9억2천480만9천m³의 5.8%이다.

순임산물 생산액은 3천421억400만원으로 전국 3조2천608억8천200만원의 10.5%를 차지한다. 임산물 생산량은 밤·호두·잣·대추·도토리·뽕은감·은행 등 수실이 3만4천80t, 버섯류 6천77t, 약용식물 2천190t, 산나물 3천63t 등이다.

수산업 2016년 말 기준 어업인구는 전업·겸업을 포함해 8천550가구 1만9천283명이다. 2017년 연간 생산 수산물은 어류 6만8천800M/T, 갑각류 7천300M/T, 연체동물 5천600M/T, 패류 2만6천700M/T, 해조류 5만4천900M/T, 기타 수산물 700M/T 등 모두 16만4천M/T에 5천73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제조업 2015년 12월 말 기준 1인 이상 제조업체는 모두 1만5천638개이며, 종사자는 27만2천244명이다.

산업단지 2017년 말 기준 도내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5개, 일반산업단지 53개, 도시첨단산업단지 2개, 농공단지 91개 등 151개가 지정돼 있다. 면적은 1억812만9천m², 입주업체는 2천462개, 종업원은 13만9천66명이며, 입주업체의 가동률은 84%에 이른다.

무역 수출 다변화와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정책 등에 힘입어 총남무역 1천억 달러 달성이라는 역대 최고 성과를 거뒀다. 총 수출액은 798억3천800만 달러로 2016년(662억1천만 달러) 대비 20.6% 증가했으며, 총 수입액은 원자재와 소비재 수입 확대 영향으로 2016년(224억5천300만 달러)대비 35.8% 증가한 304억8천300만 달러였다. 무역수지는 493억5천5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91.6%), 평판디스플레이(4.4%), 석유제품(35.4%), 컴퓨터(10.0%), 석유화학중간원료(17.3%)는 증가했고, 자동차부품(26.6%), 자동차(6.5%)는 감소했다. 수출국별로는 홍콩(25.8%), 베트남(88.8%), 미국(8.8%), 대만(14.5%), 일본(26.3%)은 증가한 반면, 중국(0.1%), 멕시코(4.7%), 말레이시아(5.1%), 필리핀(20.4%)은 감소했다.

유통 및 물가 2017년 말 기준 5일 정기시장 17개소, 상설시장 31개소, 대형마트 22개소, SSM(기업형 슈퍼마켓) 54개소가 있다. 2017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였다.

금융 2016년 12월 말 기준 금융기관 점포수는 1천98개로 은행 193, 비은행기관 905개이다. 금융기관의 수신현황은 2017년 11월 말 기준 65조5천145억원이며, 여신 현황은 2016년 11월 말 기준 59조5천663억원이다.

사회

주택 2016년 말 기준 주택은 88만8천935호로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이 47.95%인 42만6천287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이 52.05%인 46만2천648호이다. 2017년 연간 건축허가는 총 2만327동에 연면적 913만4천174m²였으며, 이중 주거용이 7천695동에 280만8천317m²로 가장 많았다.

상·하수도 2015년 말 기준 도내 총인구 213만4천 명 가운데 급수 혜택을 받고 있는 인원은 93.1%인 192만2천764명이다. 하루 1인당 급수량은 394ℓ였다. 하수도 보급률은 74.3%이고, 하수 사용료로 609억원을 부과했다.

도로·교통 2016년 말 기준 도로 총연장은 7천121km로 고속도로 430km, 일반국도 1천275km, 지방도 1천320km, 국가지원지방도 354km, 시군도 3천742km 등이며 포장률은 84.5%이다.

2017년 말 기준 등록된 차량은 관용 5천133대, 자가용 101만4천82대, 영업용 3만8천300대 등 모두 105만7천515대이다. 이중 승용차가 75.0%인 79만2천859대, 승합차가 4.2%인 4만4천363대, 화물차가 20.4%인 21만5천860대, 특수차가 0.4%인 4천433대이다.

환경 2016년 말 기준 도내 폐기를 관리구역 내 인구 215만 3천570명(외국인 포함)이 배출한 생활쓰레기는 하루 1천968.5t으로 전량 수거 처리되고 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은 대기

3천388개소, 수질 4천48개소, 소음 및 진동 3천530개소, 폐기물 6천272개소 등이 있다.

보건 및 사회보장 2017년 말 기준 의료기관은 종합병원이 13개소(지방의료원 4개소 포함)에 5천164개 병상, 병원이 45개소에 4천583개 병상, 의원이 1천53개소에 3천124개 병상, 정신병원이 17개소에 4천188개 병상, 치과병의원이 536개소에 5개 병상, 한방병의원이 524개소에 383개 병상, 요양병원이 68개소에 1만1천490개 병상, 노인전문병원이 6개소에 742개 병상 등 총 2천262개소(2만9천679개 병상)의 의료기관이 있다. 보건기관은 보건의료원 2개소, 보건소 14개소, 보건지소 150개소, 보건진료소 233개소가 있다.

이들 의료기관에는 의사 3천95명, 치과 의사 872명, 한의사 796명, 간호사·조무사·의료기사가 1만6천714명, 약사 1천374명 등 모두 2만2천851명이 종사하고 있다.

소방 2017년 말 기준 충청남도 소방본부와 1개 소방학교, 16개 소방서에 2천710명의 소방공무원이 근무하고 있고 1만367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있다.

2017년 화재 진압 2천775건, 인명 구조 6천961명, 응급환자 이송 9만573명 등의 소방 활동을 펼쳤다. 소방차량 404대, 무선통신장비 3천34대, 소방용수 5천361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10만415개소의 특성소방대상물과 위험물시설 9천723개소를 안전관리하고 있다.

교육·문화

교육 2017년 말 기준 유치원 508개소에 교원 2천273명 원생 2만8천242명, 초등학교 407개교에 교원 8천914명 학생 11만6천963명, 중학교 187개교에 교원 4천899명 학생 5만7천544명, 고등학교 117개교에 교원 5천585명 학생 7만405명, 고등기술학교 1개교에 교원 10명 학생 80명, 특수학교 6개교에 교원 325명 학생 961명, 전문대학 9개교에 교원 548명 학생 1만7천295명, 교육대학 1개교에 교원 88명 학생 1천555명, 대학교 20개교에 교원 5천198명 학생 14만8천985명, 대학원 54개교에 석사과정 8천737명 박사과정 2천233명이 있다.

문화재 도내 지정문화재는 총 990건이다. 국가지정문화재는 247건으로 국보 27, 보물 118, 사적 50, 명승 3, 천연기념물 16, 국가민속문화재 25, 국가무형문화재 8건 등이 있다. 도지정 문화재는 429건으로 유형문화재 187, 기념물 161, 민속문화재 28, 무형문화재 53건 등이며, 문화재자료는 314건이 있다. 이외에 국가지정 등록문화재가 55건, 15개 시·군에서 지정한 향토문화유산이 320건 있다.

문화시설 2017년 말 기준 영화관 22개소, 문예회관 19개소, 공공도서관 59개소, 시·군민회관 2개소, 시·군문화원 16개소, 국립박물관 5개소, 공립박물관 23개소, 대학박물관 4개소, 사립박물관 17개소, 공립미술관 2개소, 사립 미술관 7개소가 있다.

체육시설 실내(구기)체육관 29개소, 생활체육관 21개소, 국민체육센터 13개소, 골프장 24개소, 축구장 20개소, 야구장 12개소, 수영장 7개소, 승마장 1개소가 있다.

관광 주요 관광지로는 공주의 무령왕릉, 대천해수욕장, 온양·아산·도고온천, 당진 왜목마을, 부여 백제문화단지, 태안

천리포수목원, 꽃지해수욕장 등이 있다.

2017년 기준 관광호텔 19개소에 1천597실, 휴양콘도미니엄 15개소에 2천764실, 가족호텔 4개소에 211실 등이 있으며, 전문휴양시설 5개소와 종합휴양시설 1개소, 종합유원시설 5개소, 일반유원시설 27개소, 기타 유원시설 66개소 등이 있다.

문화행사 문화관광축제 3개와 지역향토문화축제 8개를 선정해 관광자원으로 중점 육성했다. 문화관광축제로는 강경발효저갈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를, 지역향토문화축제로는 홍성역사인물축제, 공주석장리구석기축제, 서천한산포시문화제, 서산국화축제, 논산딸기축제, 태안국제모래조각페스티벌, 금산금강어울축제, 청양칠갑산장승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의회활동

원 구성

〈의장〉 윤석우

〈부의장〉 신재원, 조치연

〈정당별 의석〉 자유한국당 27명,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당 2명

안건 처리 2017년 총 8회 119일간의 회기운영(정례회 2회 56일, 임시회 6회 63일)을 통해 조례·규칙의 제·개정 114건, 예산·결산 18건, 건의·결의 11건, 동의 41건, 기타 56건 등 총 240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분야별 활동 및 성과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청소년 활동 진흥 조례’,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 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도민 권익보호에 앞장섰다.

‘가뭄 극복 대책 마련 촉구’,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건립 중단 촉구’, ‘다양한 수산직물제 신설 및 확대 촉구,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 해소 촉구’ 등을 국회 및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지원 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했고, ‘석탄화력발전소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저감 특별위원회’, ‘백제문화유적 세계유산 확장 등재 및 문화관광 활성화 특별위원회’, ‘내포문화원발전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을 연장했다.


집행부에 대한 질문(4회 38명 122건)과 5분 발언(68명 71건)으로 잘못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11월 7~20일(14일간) 도청과 교육청, 산하기관 등 81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358건(시정 57, 처리 165, 제안 136)의 조치를 요구했다.

48일간 82개소의 민생현장과 사업장을 방문했고 도민 불편 사항 29건을 처리했다. 의원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연구모임 6개를 운영(간담회·현장방문 등 26회)하고 결과를 정책자료로 활용토록 집행부에 통보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공유했다.


의정활동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홈페이지와 SNS에 게재하고, 영상과 회의록을 동시에 보는 영상회의록 시스템을 운영했다. 또한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운영, 본회의·상임위 등

의정활동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의정 홍보관과 역사관 설치로 청사 방문객(4천 150명), 본회의 방청객(1천55명)을 대상으로 의정 홍보 활동을 펼쳤다. 도내 초·중·고 학생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개설한 의정아카데미에는 39개교 1천535명이 참여했다.

의원입법 지원 활동으로 도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정토론회(16회)를 개최했고 동북아 지방의회 간 협력의 일환으로 제8회 동북아 지방의회 의장 포럼(4월17~20일)에 참석하고, 일본 구마모토현과 중국 윈난성, 구이저우성을 방문해 우호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전라북도
道 道의 道의 道의



道花 : 백일홍 道鳥 : 까치
 道木 : 은행나무 캐릭터 : 신명이
 道청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도지사 : 송하진(宋河珍)

개 관

연혁 전라북도는 삼한시대 마한의 부족국가 54개 중 15개가 위치한 중심지였다. 삼국시대에는 마한을 병합한 백제의 영토였다. 백제 의자왕 20년(660년) 나당연합군에 의해 패망한 뒤 웅진도독부가 설치돼 당의 지배를 받다가 신라 문무왕 16년(676년)에 당나라를 쫓아낸 후 신라의 영토가 됐다. 고려 현종 9년(1018년)에 전라남·북도인 강남도와 해양도를 합쳐 처음으로 '전라도'라 칭하고 전주에 관찰사를 뒀다.

고종 33년(1896년) 전국이 13개 도로 개편되면서 전라도는 남북으로 분할되고 전북은 26개 군으로 구성됐다. 1897년 구례군이 전남으로, 무장·흥덕·고창이 전북에 편입됐다. 1931년 전주면이 전주읍으로, 익산면이 읍으로 승격되면서 이리읍으로 개칭됐고, 정주면이 정주읍으로 승격됐다. 1935년 10월 전주읍이 전주부로 승격되며 완주군과 분리됐다. 1947년 이리읍이 이리부로 승격되며 익산군과 분리됐다. 1949년 8월 전주·군산·이리부가 각각 전주시, 군산시, 이리시로 승격됐다. 1963년 1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금산군과 익산군 황화면이 충남으로 이관되고, 충남의 어청도와 개야도가 옥구군에, 전남의 위도면이 부안군으로 편입됐다.

1973년 7월 1일 완주군 봉동면이 봉동읍으로, 1979년 5월 1일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등 6개 면이 각각 읍으로 승격되고 1980년 12월 1일 옥구군 옥구면과 미면이 각각 옥구읍과 미성읍으로 승격됐다.

1981년 7월 1일 정읍군 정주읍과 남원군 남원읍이 각각 시로 승격됐다. 1985년 10월 1일 전주시와 인접한 완주군 초촌면이 읍으로 승격됐으며, 1988년 7월 전주에 완산·덕진 2개 출장소가

신설됐다. 1989년 1월 김제군 김제읍이 시로 승격됐고, 5월 1일 전주의 2개 출장소가 구청으로 각각 승격됐다.

1995년 1월 1일 옥구군이 군산시로, 정주시와 정읍군이 정읍시로, 남원군이 남원시로, 김제군이 김제시로 통합됐고, 1995년 5월 10일 이리시와 익산군이 익산시로 통합됐다.

면적·인구·행정구역 총면적은 국토 면적의 8.1%인 8천 67.25km²이다. 그중 임야가 4천493.6km²(55.7%)이고 논과 밭이 2천171.42km²(26.9%) 등이다. 도내 가장 넓은 자치단체는 완주군(821km²)으로 전체 면적의 10.2%를 차지한다. 가장 좁은 면적의 시는 전주시(205.57km²)이고, 군은 부안군(493.1km²)이다.

인구는 2017년 12월 말 기준 79만7천916가구에 185만4천607명이다. 2016년보다 1천 명가량 줄어든 수치다.

전북의 자치단체는 6개 시, 2구, 8개 군으로 구성돼 있으며 25개의 유인도와 78개의 무인도가 있고 도서 중 가장 큰 유인도는 위도다.

전라북도 면적·가구·인구

(2017년 12월 말 현재)

구분	면적(km ²)	가구(세대)	인구(명)		
			계	남	여
합 계	8,067.25	797,916	1,854,607	922,307	932,300
전주시	205.57	260,683	648,964	319,442	329,522
군산시	395.85	115,657	274,997	139,246	135,751
익산시	506.53	126,333	300,187	149,587	150,600
정읍시	692.78	52,722	113,776	56,365	57,411
남원시	752.20	37,686	83,281	40,868	42,413
김제시	544.81	41,712	86,926	43,110	43,816
완주군	820.99	41,835	95,975	49,282	46,693
진안군	789.14	12,927	26,271	13,149	13,122
무주군	631.86	12,001	24,809	12,294	12,515
장수군	533.28	11,144	23,003	11,410	11,593
임실군	597.32	14,557	30,162	15,391	14,771
순창군	495.96	13,872	29,698	14,349	15,349
고창군	607.86	29,159	60,472	29,934	30,538
부안군	493.10	27,628	56,086	27,880	28,206

재 정

2018년도 총예산은 14조6천904억원으로 2017년 예산 대비 9.2% 증가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조323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조3천672억원이다. 본청 예산 총규모는 5조6천207억원으로 2017년 대비 5천억원 증가했고, 이중 일반회계는 5조1천301억원, 특별회계는 4천905억원이다.

시·군 예산 총규모는 9조697억원으로 2017년 대비 8천억원가량 증가했고, 이중 일반회계는 8조1천930억원, 특별회계는 8천766억원이다. 본청 일반회계 5조1천301억원 중 세입은 지방세 1조268억원, 세외수입 404억원, 지방교부세 8천219억원, 국고보조금 2조9천681억원이다.